

2018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11.29.(목) 오전 10: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심층성, 속보성 제고

- 케이티 통신망 화재, 종로 고시원 사고 관련 사실보도, 중계보도에 충실했음. 하지만 케이티 망관리의 구조적 문제와 집없는 주택난민(120만 명 추정)의 실상은 무엇인지 심층보도가 없음. 빈약한 위기관리대책에 대한 질책과 대안제시 노력이 보이지 않음. 대형사고 발생시 중계보도, 신속보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미칠 파장, 의미, 개선, 치유대책도 함께 다루어주기 바람(권영후 부위원장).
- KT 아현지사 화재와 통신대란 관련 지난번 고양 저유소 화재처럼 속보와 심층보도가 아쉬웠음(곽병찬 위원).
- 중대한 경제현상에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과 해설이 제공되거나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진단이 제공되는 경우를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경기하강은 초미의 관심사로 10월말에는 통계청에서 경기를 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1월12일에는 통계청장이 작년 2분기 이미 경기 정점 통과했다고 밝혔음. 물론 이 두 기사는 정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음. 그러나 지금 경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와 현상을 토대로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이고, 기자나 경제전문가들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 할 사안임. 예컨대 15일 아침 출발 640에서 최요한 경제평론가가 나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분석회계 판정에 대해 앵커들과 문답을 나눈 것이 그런 사례이다. 복잡한 경기문제는 경제전문가의 해설이 더욱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음(배정근 위원).
- 최근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등과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생활 주변의 폭력이 증가하는 원인, 해결책, 대책 등에 관한 심층 보도가 아쉬움. 또한 좀 더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책 제시가 이루어졌으면 함. 지금의 보도는 주로 폭력, 구속, 처벌, 재범 등 사건이나 사법적 대상으로만 들여다보는 인상을 주는데, 이러한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 이유, 이해, 해결책 제시 등도 필요할 것임(하규섭 위원).
- 11.25(일) 오전 10시 뉴스는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장 상황에 대한 보도 대신에 전문가 (소방방재학과 교수) 대담 방송을 약 30분간 계속함으로써,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하여 속보를 기대하는 시청자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됨. 만일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주변의 목격자들, KT 관계자, KT 사용 시민들과 실시간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긴급 상황 보도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에는 분명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도팀의 신속한 현장 파

견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준 사례가 되었음(오준 위원장).

▲ 언론 보도의 역할

-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공론장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로 등장. 정부방침 관련 자율규제와 법규제 강화, 리터러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등이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음. 가짜뉴스 구별을 위한 지속적인 리터러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법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보도 기능을 강화해 언론의 자율정화 역할의 모색이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동북아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의 발언을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 돋보였다. 클링너는 10월16일 미 국무성 초청을 받은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음. “공개적으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화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걸쳐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음.” “중전선언 서명은 안보 측면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지, 미국 국내법 등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고 본다.” “중전선언은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과 대북제재의 존립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음. 이 부분을 연합뉴스 기사는 귀국한 뒤 가장 먼저(27일 낮) 보도했음. 이 기사를 보고 조선중앙 한국 등 일부 언론은 클링너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음. 제목은 한층 더 자극적이었음. “미국 정부 관료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실제론 문 대통령 과속에 분노” 따위였다. 한국 언론은 이후 한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음. 초보적인 군축 문제, 남북철도 공동조사 문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미국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투였음. 물론 일부 오해로 말미암은 이견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그것이 한미동맹을 흔든다거나 미국을 분노하게 했다거나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이었음. 그 좋은 실례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미국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한 사실이었음. 미국의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은 사실 한반도 속사정에 대해 상당히 무지함. 미국의 관점에서만 북한을 이해하려 하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임. 그 좋은 실례가 미국 외교협회 한국담당이 ‘폭로’한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20여 곳임. 이미 한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북미 협상에서 폐쇄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들임. 한 국가가 자국의 방위를 위한 무기체계와 기지를 세상 만방에 알리고 다니는 경우란 없음. 그것도 잠재적 적국에게 미리 알려주는 건 미친 짓임. 클링너는 이에 대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핏대를 세웠음. 멍청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임. 9월까

지만 해도 연합뉴스티브이는 클링너의 발언을 중시했음. 9월14일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티브이는 그와 인터뷰했음. 그는 다짜고짜 "남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고 말했음. 클링너가 보고 듣는 게 미국 전체 의견은 아니다. 다수도 아니라. 오히려 소수임. 정상회담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음. "남북 정상회담의 평양 공동선언은 달갑지 않은 딜레마를 미국에 안겼다. 한미관계에 긴장을 가져오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행복감을 주는 평화열차에 탈 것인지 딜레마다." 그러나 이 남북 정상회담은 정체됐던 북미 협상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음. 앞으로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선별하길 바람. 사실 그들은 우리 정보기관보다 정보도 적고, 판단도 왜곡돼 있고, 과장도 잘 함. 이번엔 특히 자매 매체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신중하게 감별했다는 점에서 더 높이 사고 싶음(곽병찬 위원).

- 정신과, 심리학 등의 전문가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묻지마 폭행,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등은 정신적, 심리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짚어보아야 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 토론 등을 통해 사회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봄김석민 위원).
-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 그중에서도 날로 악화하는 경기와 고용, 일자리 문제인데 연합뉴스TV가 이런 당면 현안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도해줬으면 함. 현재 경제뉴스 보도 방식에서 아쉬운 점은 첫째, 전체 뉴스 배분에서 경제뉴스가 그 중요성에 걸맞게 취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주요하게 부각하는 헤드라인 뉴스는 대개 정치, 사회, 외교 기사이고, 경제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의미 있는 기사들이 소홀히 다뤄지기도 함. 예를 들어 11월 22일에는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증가했음.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연합뉴스TV는 오후 시간대 뉴스워치에서는 이 사안을 보도했으나 메인뉴스인 저녁시간대 뉴스리뷰와 뉴스투나잇에서는 볼 수 없었음. 매시간 중요뉴스로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였음(배정근 위원).

▲ 화면구성, 자막 등 표현 개선 필요

-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혜경궁 김씨 수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중요 뉴스자막을 "이재명, 경찰 B급 정치에 골몰"이라고 뽑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듦. 오히려 "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라고 하고, 이에 대한 이 지사 측의 반응을 보도해야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함(최신용 위원).
- 지역적인 통신 장애를 초래한 토요일 아침의 kt화재 보도시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한 생방송화면을 사용하면서 오후 2시, 3시6분까지 붉은 "Live 표시가 계속 떠 있었음. 오전에는 생방송이었지만 오후에는 이미 생방송이 아니 데도 불구하고

고 생중계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음(최신용 위원).

- 적절한 자료화면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용과 화면의 일치감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함. 예) 뉴스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조치한 내용인데 화면은 세종시의 고용노동부 청사 사진이 나옴. 일기예보에서 배경화면으로 경치 좋은 곳이 많이 나오는데 화면 하단에 장소를 알려주면 좋겠음. 좋은 장소가 궁금하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그 화면을 보고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임(김석민 위원).
- 미세먼저, 추위 등으로 날씨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간혹 기상뉴스를 전하는 기상캐스트들의 영상이 그들의 의상 때문인지 마치 CG를 입힌 것으로 어색하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11월 11일 오후에 기상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 모습이 그랬는데 몸 윤곽을 따라 마치 검은선을 그려 넣은 듯이 배경화면과 따로 놀았음. 처음에는 크로마키의 문제인가 생각했으나 다른 날 기사 캐스터 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날 기상캐스터가 입었던 핑크색 의상 때문이 아닌가 의심. 시청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음(배정근 위원).
- 제주 여성 자녀 주검발견 보도 관련 파주시 사는 여성 부각, 파주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낙인효과가 우려됨. 서울 경기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쌍둥이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매라는 표현이 적절함. 부정적 낙인효과 가능성이 큰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성차별, 인종차별적 용어의 사용에 관한 사례를 발굴, 반복적으로 소개해주길 바람권영후 부위원장).

▲ 프로그램 기획, 제작 의견

- 정부 발표와 통계자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 현장의 생생한 실태와 목소리를 전하는 기획기사가 필요한데 좀처럼 보기 어려웠음. 10월29일에는 <경제지표 악화일로인데.. 정부는 낙관론>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경제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는 기획성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이 기사에서 현장 이야기는 증권 관계자의 부정적 코멘트가 전부였음.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경제 현장 분위기가 싸늘하다고 보도해도 되는지 의문임. 그나마 11월 19일에 보도된 <너도 나도 '고스펙'에 사라진 변별력...취준생 한숨> 기사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제대로 된 기획기사였음. 11월23일에는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정부 발표에 의례적인 전망을 붙인 정도였고, 실제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의 목소리는 없었음(배정근 위원).
- 화를 못 참는 세상,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식 던진 사람, 분노조절 장애, 횡김에 살해 등과 관련한 보도도 현상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보도나 대담 등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함(하규

섭 위원).

- 매주 월요일 아침 주간 날씨 예보시 그래픽 화면 병행 송출했으나 지난주 월요일 출발 640때 '주중말께 영하까지 떨어지겠다'는 예보를 구두로만 되풀이함.
- 채널 틀어놓고 있으면 어떤 때는 10분 사이에 동일내용 반복. 채널변경 요인으로 작용됨, 보도 안한 새로운 뉴스들을 중간 중간 배치하고, 그게 힘들면 앵커멘트나 보도순서만이라도 바꾸는게 바람직(이경상 위원).

▲ 기자 전문성 및 아나운서 관련 의견

-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보도는 속보 중심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음. 가끔 등장하는 분석과 전망이 현실을 짚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다음은 10월부터 보도한 관련 주요뉴스임. 10.4 유엔사, 남북합의 정신 존중(남북 철도 공동조사 8월 실시 합의했으나 유엔사 반대로 무산) 10.16 철도협력 등 미국과 긴밀 협의, 10.21 내일 남북 산림회담, 이번 주 철도 공동조사 가능성, 10.28 남북 철도사업 차질 빛나, 북측구간 조사 불투명, 11.7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로 철도 착공식 등 남북관계에 후폭풍 예상(남북, 10월말 조사하기로 합의), 11.13 남북 군사합의 이행 진도, 도로 철도 연결은 제자리, 11.20 워킹그룹 20일 출범, 11.21 한미 정례화 합의, 서로 다른 소리 내지 않겠다, 11.21 한미 워킹그룹 '철도 연결 강력지지' 폼페이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나란히 가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은 남북 철도 조사 사업에 강력한지지 표명했고 이를 공개하길 원했다. 올해 안에 착공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폼페이오. 양국이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진행과정 공식화하기 위해 워킹그룹 출범시켰음. 비핵화와 남북관계 증진은 나란히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음. 11.21 저녁 뉴스, 먹구름 걷힌 남북 철도연결사업, 연내 착공은 어려울 듯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엄격한 병행 기조를 강조한 것도 변수임. 북한 비핵화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면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다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 이르면 이번 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임. 이 가운데 11.7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로 철도 착공식 등 남북관계 후폭풍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있을 수 있는 전망이기는 하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음. 21일 "먹구름 걷힌 남북 철도연결사업, 연내 착공은 어려울 듯" 역시 성급했음. 같은 날 이도훈 본부장은 연합뉴스티브이와의 인터뷰에서 "철도 조사 후 연내 착공식이 목표"라고 말했음. 이 본부장은 또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고 귀땀했음. 그러나 연합뉴스티브이 기자은 거듭 연내 착공 어렵다고 싸기를 박았음(곽병찬 위원).
- 아침 [라이브 투데이]에서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출연하여 진행자와 질의 답변 형식으로 주요 국제 뉴스를 설명하는 것이 좋았음. 경륜이 있는 기자로서 내용도 좋고 안정감이 있게 해설하고. 며칠간 본 것은 국제뉴스와 관련, 한 분이 계속 나오는데 선임기자를 다양화하여 전문분야를 좀 더 세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대만 선거, G20, 한미 군사훈련, 남북문제 등에 대해 며칠간 한 분이 계속 출연하여 하기 보다는 좀 다양하게 출연하면 어떨까 싶음(김석민 위원).

- 전체적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의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음. 아침 7시 시간대에 방송하는 여성 아나운서의 경우 목소리 톤이나 발음 등이 단조롭고 경직된 느낌이며(마치 책을 읽는 듯한), 표정 등도 프로 아나운서다운 느낌이 나지 않는 것 같음. 또한, 예를 들어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경(정확하게는 5시 11분 경)에 진행되었던 뉴스에서는 여성 아나운서가 지나치게 눈을 깜박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느껴졌음.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경우 보는 시청자들은 조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음. 아나운서 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연합뉴스 티브이만의 아나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봄.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약직인 아나운서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노영희 위원).

▲ 긍정적 평가

- 과거 오렌지색을 중심으로 한 지나치게 밝은 색상의 화면 구성이 안정감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최근 1-2 개월간 오렌지색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짙은 톤의 안정된 색상이 많이 보이고, 뉴스 캐스터 뒷면의 스튜디오 배경도 짙은 색조를 가미함으로써 전체적인 화면과 배경의 색조가 개선됨(오준 위원장).
- 저녁 8시 수화뉴스는 젊은 해설평론가 출연회수가 증대됐고 자막뉴스의 이해도 제고됨(권영후 부위원장).
- 10월 28일 9시 뉴스에서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우박 내림을 보도할 때 시청자들이 보내온 동영상들을 활용한 건 매우 바람직해 보임. 사건, 사고 발생시 제한된 취재 자원을 가진 연합뉴스TV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나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오래된 자료 화면을 활용하는 것 보다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 뉴스의 생동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음. 이런 활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유인을 더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최신용 위원).
- 반면 11월24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스에서 남북철도연결조사사업 유엔제재 면제 보도시 화면이 보여준 유엔 회의장면은 올드한 자료 화면인데다 그런 설명 없이 영상이 방영되어 시청자들이 최근 회의 장면으로 착각할 수 있었음. 그러나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할 수 있는 뉴스에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를 초대하여 유엔제재 면제 의의와 전망을 예측해 본 것은 시의적절한 것 같음(최신용 위원).

(끝).